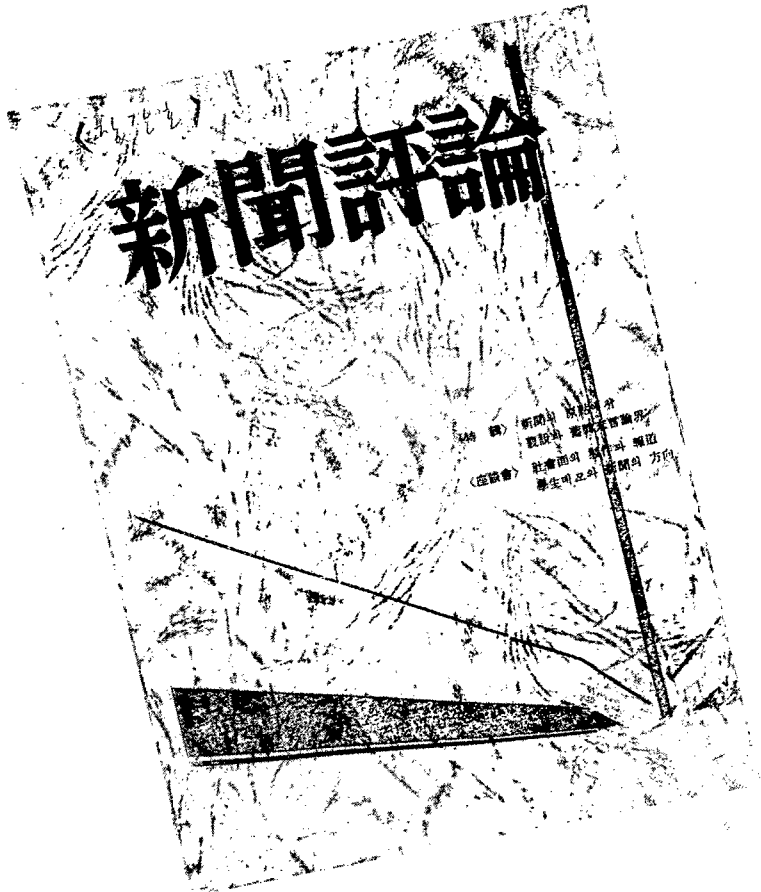


신문평론에서 신문과 방송까지

통권 200 호의 어제와 오늘



64년 4월 창간호

월간 신문과 방송이 1987년 8월호로 지령200호를 기록했다.

1964년 4월1일 한국신문연구소 설립과 함께 신문평론이란 제호로 출발한 월간 신문과 방송은 지난 23년여 오랜 기간 여러가지 변모를 거듭해온 끝에 통권 200호를 발행함으로써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긴 매스컴 전문 월간지로 성장한것이다.

창간당시의 빈약한 매스컴 연구풍토와 여러가지 어려운 언론환경속에서도 꾸준히 맥을 이어옴으로써 이나라 언론을 지켜본 월간 신문과

방송 지령200호의 발자취를 더듬어봤다.

신문평론으로출발, 토론의 광장될 것 기약

월간 신문과 방송은 1964년 4월 신문연구소의 발족과 더불어 처음엔 「신문평론」이라는 제호로 창간됐다. 창간사에서 밝힌 바와같이 신문평론은 신문계 공동의 연구표현의 기관이 될것을 약속하며 신문계의 모든 인사들이 유쾌히 참가할 수 있는 토론의 광장이 될것을 기약하였다.

신문평론을 발행한 신문연구소의 설립 배경

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 4월 편집인협회(57년발족) 총회에서 신문·통신계의 체계있는 발전을 위해 연구·조사, 교양, 훈련등의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신문연구소 설치가 처음 발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신문연구소의 설립을 위해 편협회원인 홍종인씨가 설립준비위원장으로 지명돼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4·19와 5·16 등 사회격변기를 맞아 기금확보의 곤란으로 설립이 계속 지연됐었다.

그러던 중 1963년 편협총회를 전후로 한국일보사장 장기영씨가 1백만원, 그 뒤를이어 동양통신사장 김성곤씨와 동화통신사장 정재호씨가 각 50만원씩을 연구소 기금으로 내놓고 향후 연구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본격적인 설립준비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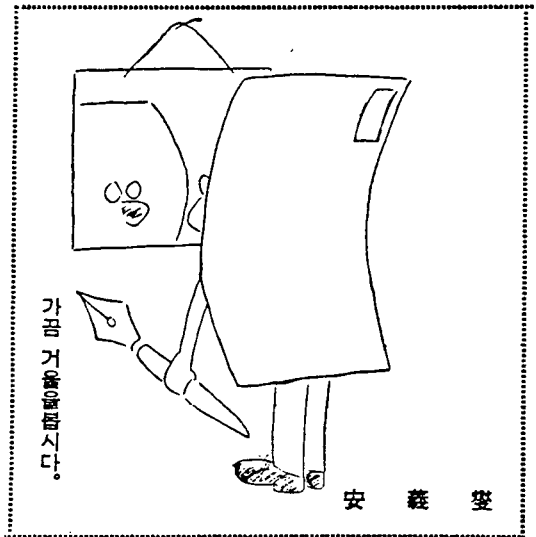
1963년 10월부터 연구소설립준비위원으로 홍종인(조선일보고문), 조세형(한국일보 외신부장), 박권상(동아일보 논설위원), 박홍서(시사통신 편집국장)씨등 편협회원이 회합을 가지면서 사무소를 신문회관내(209호실)에 두고 준비사무에 착수했으며 이어 연구위원과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기 시작, 64년 4월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목적을보면 한국신문연구소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제분야에 관한 이론 및 실제조사연구를 시행하며 동시에 연구결과의 보급조성및 신문인의 훈련을 기도하여 국내 언론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건전한 저널리즘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월간지발행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월간지 발행계획을 보면 4·6배판 50면 내외로 언론관계의 구체적 문제를 취급한 논문, 매월 언론계에서 일어나는 중요사건 및 언론단체의 동향, 외국 언론기관및 단체와 교환하는 자료, 언론관계법의 해설, 신문인교양을 위한 자료 등을 월간지 주요 내용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신문연구소는 월간지외에 계간지도 함께 낼 계획이었으나 계간지는 발행하지 못했다.



안의섭화백의 신문만평 (64. 4참간호)

월간에서 격월간, 계간, 다시 월간으로

신문평론의 발행은 신문연구소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이었으며 4·6배판 84페이지의 월간으로 첫 출발을 했다. 당시 신문연구소장겸 발행·편집인은 홍종인씨가 맡았으며 편집위원으로는 김규환(동양통신 편집부부장), 김용구(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종규(동화통신 편집국장), 박권상(동아일보 논설위원), 송건호(경향신문 논설위원), 임근수(중앙대 신문학과교수), 조세형(한국일보 외신부장), 천관우(동아일보 편집국장), 최석채(조선일보 논설위원)씨등이 위촉됐다.

제작 담당 편집간사는 합동통신 정치부 출신의 고명식씨였다. 월간으로 시작한 신문평론은 64년 11·12월호를 합병호로 내고 통권13호인 65년 5월부터 격월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격월간은 65년 11월호(16호)까지 계속되다 신문연구소가 사단법인으로 개편되면서 계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내언론계와 IPI아시아지부의 도움을 받아 법인체로 개편을 추진해 오던 신문연구소는 1966년 1월 25일 공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얻

어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이와함께 IPI아시아지부에서 연간 1만2천5백달러의 사업비를 3년간 보조받기로 했다. 이와같은 조직상의 발전적인 개편과 재정적인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신문연구소는 그나마 격월간으로 발행하던 신문평론을 계간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에 대해 신문평론은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학구적인 것으로 꾸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사단법인 발족과 함께 신문연구소는 저널의 발행보다 세미나 등의 언론인 연수등에 비중을 많이 두게되는 경향을 보였던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유는 제작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당시의 편집간사 고명식씨는 말하고있다. 당시 언론계 내의 자기점검은 그 관심도가 낮은편이어서 신문평론에 글을쓰는등 언론인의 전반적인 신문평론에의 참여도는 낮을수 밖에 없었다는것이다. 따라서 언론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내용이 꾸며질수 밖에 없는 신문평론의 원고수집이 어려워졌고 마침내는 격월간에서 계간으로 바꾸어 그 내실을 찾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윤리위원회법 파동이후 공화당정권의 언론에 대한 선심공세가 언론의 비판적 입장을 누그러뜨리게 되면서 언론 스스로에 대한 자기비판이 점차 둔화 된것과도 연관이여 생각해야 할것이라고 고명식씨는 덧붙였다.

17호인 66년 봄호부터 계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신문평론은 발행인이 오종식소장과 이관구소장을 거쳐 4대 윤임술소장에 이르러 다시 격월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격월간으로 발행되기 직전의 40호는 72년 봄·여름호가 합병호로 나왔고 72년 가을 41호를 내고 난뒤 73년5월까지의 발행되지 않았는데 이때는 72년 10월유신이 선포되었던 시기이다. 당시 편집간사로 있었던 송창기씨(현 국민대중문과교수)는 71년부터 정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72년 10월유신이 전격적으로 선포되자 언론계 내외의 상황이 극도로 굳어지면서 결호가 생기게됐다라고 말한다.

7개월간의 공백이후 73년 5월 통권 42호부

터 계간에서 격월간으로 체제를 바꾼 신문평론은 표지를 새로이 바꾸고 광고도 대폭 재제하는등 내용상에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당시의 발행인 윤임술소장(현 부산일보사장)은 그때까지의 학술적이고 시사중심의 편집내용을 현업중심의 실무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격월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당시 회원사의 회비만으로는 그 운영이 어려워 출판사업 등 수익사업에 손을대는 한편 신문평론의 부수신장에도 힘썼다.

73년 11월 45호때는 원고가 넘쳐 1백90페이지까지 발행했다. 당시까지 1백면 내외로 발행되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가운 부피였고 이러한 수준은 월간으로 바뀔때까지 계속됐다. 그후 동아·조선일보사태로 언론계가 어려움을 겪던 75년 5월부터 신문평론은 제호를 월간신문평론으로바꾸고 창간당시의 월간체재로 복귀하였다.

이때부터 신문계 현안에 대한 기사뿐아니라 방송에 대한 기사도 많이 취급하자 언론계에서는 신문평론이라는 제호를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다.

마침내 신문연구소 이사회는 신문평론의 제호를 월간 신문과 방송으로 바꾸기로 결정 76년 11월호(74호) 부터 제호를 월간 신문과 방송으로 바꾸어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신문연구소가 해체돼 언론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던 때인 81년까지 81년 6·7월호(127호)를 합병호로 발행한것을 제외하고는 결호없이 계속 월간으로 발행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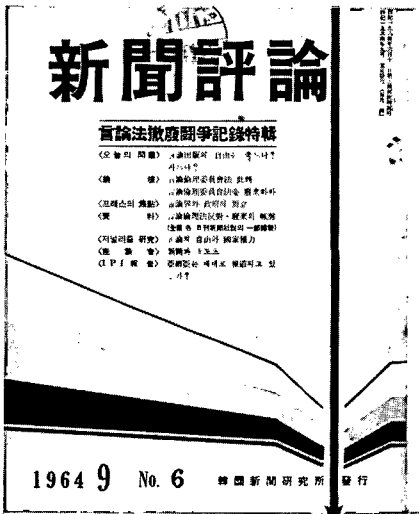
언론연구원에서 발행을 계속한 월간 신문과 방송은 86년 9월호(189호)부터 표지를 새롭게 바꾸었고 87년 1월호부터 가로쓰기를 단행 지면을 쇄신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발행인도 윤임술, 노철용, 조용중원장으로 바뀌었으며 편집책임자도 김경환(작고)이사에서 최중수, 조용중 이사로 바뀌었다.

감시·비판기능 발휘한 흥소장시대

월간 신문과 방송이 200호에 이르는 동안 내용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창간당

시 내세웠던 언론관계논문, 중요 언론관계사건 및 언론계동향, 외국자료 및 언론인교양을 위한 자료 등의 소개가 200호 전반에 걸쳐 주된 내용을 이루고는 있지만 내용상 특징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한다면 크게 3부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홍종인소장이 발행인으로 있었던 신문평론 창간부터 65년 12월(16호)까지의 언론비판 및 감시기능의 논조를 펴던 시기, 둘째 세미나 등의 학술적 내용과 언론자체 연수를 중심으로 다루었던 시기 <66년 봄(17호)~72년 가을(40호), 오종식 이관연구소장재임>, 세째로 언론실무 및 자료중심으로 내용을 이끌었던 시기 <73. 5월(42호)~현재 윤임술신문연구소장·언론연구원장, 노철용·조용중원장 재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리위파동다룬 64년 9월호

이런 내용상의 변화는 발행인 및 편집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당시의 언론계상황 및 분위기와도 관련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4년 4월의 창간호를 보면 창간의 취지와 배경을 밝힌 창간사가 첫머리에 게재되었고 이어 언론계의 현안을 편집진에서 다룬 오늘의 문제가 실려있다. 이는 홍종인소장등이 집필한 것으로 언론계에 대한 논평이라 할 수 있는데 64년 8월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에 이르러 정권

에 대한 비판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창간호에서의 오늘의 문제는 당시 신문용지의 기근문제, 달려절약과 관련 해외특파원수와 송금액을 제한한 정부조치를 비난한 내용,

일부 중앙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원에 대한 금품강요 사건등 불미스러운행동에 대한 경고등을 다루면서 언론에 대한 감시기능을 가진 저널리로서의 면모를 나타냈다.

시론으로는 동아일보주필이며 편집인협회회장이던 고재욱씨가 신문주간과 관련「신문의 공정과 현실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신문의 공정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편집실에선 3개 중앙지 편집국장으로부터 신문공정성에 관한 설문을 받아 이를 게재했다.

특집으로는 「신문의 원점에서」라는 주제로 「사회근대화와 신문」(홍종인), 「신문의 지도적 기능은 과연 쇠퇴하고 있는가」(천관우), 「신문에의 기대」(황성모·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기자직은 직업화되어야 한다」(조세형) 등 신문기능의 당위문제에 대한 글을 실고있다.

오늘의 문제가 언론계현안에 대한 사설이라면「프레스의 초점」은 언론관계 분석기사라 할 수 있다. 창간호의 프레스의 초점은 송용식합동통신사회부기자가 당시 삼분의혹사건 보도와 관련 경향신문과 삼성재벌의 법정대결을 중심으로 '공익보도와 명예훼손의 한계'를 다루고 있으며 신문윤리위 사무국장 엄기형씨가 해외 화제로 「조일신문의 경영권분류」를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제1회 신문연구좌담회 내용을 실고 있는데 사회면의 제작과 보도를 주제로한 사회부장의 좌담회 내용이다. 박남규(동화통신), 이원홍(한국일보), 이준영(합동통신)씨등이 참석, 커트라인 예상보도 등 당시 입시보도문제



초대발행인 홍종인소장

와 미군기지내에 침입한 한국인에 대한 사설사건 보도 등 당시 사회보도의 중요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

이밖에 「기자실 탐방」에서는 청와대, 국회, 시경기자실의 실태를 읽을거리로 실고 있으며 당시 대학신문학과(서울대 신문연구소, 이대, 중대, 한대)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당시 한일회담반대데모와 관련 「학생데모와 신문의 방향」을 주제로 김증한(서울법대), 서남동(연세대), 이항녕(고려대), 홍승면(동아논설위원), 최석재(조선논설위원), 임방현(한국논설위원)씨등 대학교수·신문인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신문보도의 방향과 한일회담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창간호는 이외에도 「신흥개발국의 신문인」 「미국의 저널리즘」 등 해외 연구논문등도 수록하였으며 「얼굴」란에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한 유봉영조선일보부사장겸 주필을 소개하고 있다.

창간호에서 다룬 이같은 성격의 내용은 66년 오종식소장이 취임, 계간지로 바꾸기전까지 계속된다. 오늘의 문제는 신문의 발행부수 공개문제, 군사정권이 선포한 6·3비상계엄에 대한 비난, 윤리위원회법제정에 대한 격렬한 비난및 항의, 신문기자의 구타및 제재에 대한 문책요구, 한·일 협정조인개탄, 사이버기자의 단속요구, 신문증면요구, 기사논조등의 자체반성등을 다루면서 언론계의 파수꾼으로서의 구실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죽느냐 사느냐...윤리위파동 특집다뤄

특히 64년 9월호는 표지부터 고덕활자로 언론법철폐투쟁기록특집이라고 인쇄하고 오늘의 문제, 논단, 프레스의 초점등을 통해 언론윤리위원회법철폐의 주장및 기록을 52페이지에 걸쳐 게재했다. 이 특집에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죽느냐? 사느냐?」 「언론윤리위원회법 폐기하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있고 전국 각 일간신문사 사설등을 모아 「언론윤리법반대·폐기의 합성」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고있다.

64·65년의 프레스의 초점은 경향신문 64년 5월 12일자 의 앙케트관련 필화사건, 6·3비상

계엄과 신문의 수난, 반공법으로 기소된 동아방송 기자들의 앵무새사건, 경향신문 윤상철기자 내란선동혐의 구속사건, 언론파동과 정부의 보복조치, 조선일보정치부 이영희기자 반공법기소사건, 경향신문의 오보와 한양대생들의 난입사건, 경향신문 이형백 체육부장 간첩혐의 구속사건, 대일청구권과 상업차관관계 기사로 인한 합동통신의 송병호기자 구속사건, 위협받는 취재원보호와 권리, 평지풍과 일으킬뻔한 비밀보호법안, 곧봉세례받는 취재의 자유, 위협받는 국민의 알권리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프레스의 초점은 처음엔 일선기자들이 기명으로 집필하다가 얼마후부터는 무기명으로 바뀌었다. 또한 매호마다 각부장단좌담회를 통해 부서별로 당시 신문보도의 문제를 자체점검하면서 편집 보도방향을 정리해 나갔다. 64년 6월호(3호)에서는 김성열(동아), 선우휘(조선), 윤종현(한국)등 각사 편집국장이 참석 신문의 기자양성 훈련에 관한 좌담회를 열고 기자연수에 대해 논의했으며 65년 2월(10호)에는 저널리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이 광복산, 김규환, 박유봉, 임근수교수등에 의해 토의되기도 했다.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대화로 유진오고대총장과 홍종인소장간의 대담도 함께 실려있다. 이밖에 64년 4월 22일 박정희대통령이 담화에서 언급 한 언론관에 대해 편집위원인 김규환교수가 「중립성과 시시비비」라는 제목으로 이를 비판하는 시론을 실은 것을 비롯 각종 시론과 논문을 게재했으며 65년 5·6월호(13호)엔 처음으로 방송을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방송의 현황과 방향을 논의했다(천관우 동아일보편집국장, 박화목기독교방송부장, 이병용방송윤리위원, 임택근MBC방송부장등 참석).

또한 흥미로운 내용 가운데 하나는 65년 1월부터 2월까지 고명식편집간사가 매주 일요일 MBC방송의 신문진단이라는 프로에 출연, 신문에 대한 논평을 하였고 이 내용이 「신문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신문평론에 그대로 게재된점이다. 방송에서의 신문평이 흔치 않는 우리나라의 언론풍토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드



2대 발행인 오중식소장

(지도위원 광복산, 김규환, 이만갑교수)에 의뢰 유재천(현 서강대신방과교수) 김진균(현 서울대사회학과교수) 연구원의 조사로 실시했다. 이 결과보고는 신문평론 64. 5·6월호(13호) 부록으로 실렸으며 이 조사(서울시 독자대상)를 시작으로 지방독자, 소도시 농촌독자대상 사회조사가 계속적으로 실시발표됐다. 이 조사를 위해 유재천연구원은 64년 9월부터 67년말까지 신문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신문독자조사를 최초로 실시했고 본격화시켰다. 65년 7·8월호(14호)는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미국에서 신문학박사학위를 획득한 이재현(당시 주불공보관장)씨의 학위논문「보도효과의 종합적 전후 실험을 통한 사회적거리척도의 적용」을 요약소개하는등 학문적 업적도 수록해 나갔다.

이처럼 흥중연구소장이 재임한 64·65년동안 신문평론은 저널리즘 리뷰와 비판적인 감시기능을 함께 견지해 나갔으며 사회조사와 같은 학문적인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는등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사단법인 개편후 세미나등 토론내용 홍수

신문연구소가 사단법인인가를 받아 기구를 개편, 오중식소장(이사장 고재욱 동아일보 주필)이 취임하면서 신문평론은 66년 봄호부터 계간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달라졌다. 이때부터 언론계 내외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펴던 오늘의 문제, 프레스의 초점이 없어지고 IPI세미나, 신문연구소세미나 등 세미나중심의 자체토

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당시 황용주 MBC사장의 배려로 가능했다고 고명식씨는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신문독자에 대한 사회조사를 서울 대 사회학 연구실

론을 대폭 게재해 나갔다.

66년 봄호는 국가이익과 언론(최석채 조선일보주필) 한국신문의 사회적 운동(김경환 조선일보편집국장), 조사보도의 일반적 고찰(조용중서울신문편집국장) 등 IPI 11차 아시아세미나 주제논문과 신문·통신사편집국장·부장 좌담회, 사회부장세미나 등을 실고 있다.

이때부터 신문연구소는 서울과 지방을 순회하면서 언론인 자체연수·세미나를 가졌고 여기서 발표한 내용을 신문평론에 게재했다. 주제발표자로는 오중식소장, 천관우 동아일보편집국장, 임방현한국일보논설위원, 송건호경향신문논설위원, 최석채조선일보주필, 부완협사상계발행인 등이 활약했다.

66년 겨울호(20호)는 신문연구소와 일본신문협회가 주최한 제1회 한·일편집간부 세미나 주제내용등을 실고 있으며 66년 신문회고좌담회로 편집권독립문제를 다루었다(참석 김문용 대한일보 편집국장, 김용구한국일보논설위원, 이동수동아일보편집국장, 조세형경향신문편집국장대리, 임근수중앙대교수 등).

문화부장, 정치부장, 경제부장, 공무국장, 여성기자, 체육부장, 사진부장, 조사부장, 교정부장, 논설위원세미나도 신문연구소주최로 개최돼 그 내용이 신문평론에 게재됐다.

이밖에 편집국편제의 개편과 지면쇄신을 주장한 논문(「수십년 입어온 누더기 현웃」조세형), 편집권독립문제를 다룬 시론(「편집권독립-신문종사자들의 양식의 문제」이규현 코리아타임즈편집국장),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성을 다룬 논문(「한국방송의 현황과 방향」김규TBC 상무)등도 이시기에 게재된 글들이다.

66년 가을부터 고명식편집간사가 유네스코 장학생으로 1년간 도미·유학하는 동안 박승훈씨(현 건국대교수·66년가을~겨울)와 안광식씨(당시및 현이화여대신방과교수·67년 봄~가을)가 편집간사를 맡아 신문평론을 제작했다.

고명식간사가 돌아온 67년 겨울호(24호)부터 다시 「반공법과 언론·통신의 자유」(이병용 변호사), 「언론자유·신문독립의 위기」(홍중인 동화통신회장), 「보도관제와 언론의 주제

성](김경환조선일보논설위원), 「보도자유에 대한 압력」(남궁철 강원일보편집부국장), 「한국신문의 투쟁정신」(최석재) 등 언론자유 및 보도관제문제등을 다루는 내용이 게재되었으며 68년 가을 고간사가 동양통신 외신부장으로 옮기면서 세미나중심으로 내용이 다시 바뀐다. 69년 봄호(29호)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형욱씨가 '보안에 관한 소고'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69년 가을호(31호)부터 신아일보기자로 있던 송창기씨가 편집간사로 참여하고 69년말 오종식소장이 대한공론사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70년 2월 이관주소장이 부임하면서 표지가 바뀌고 세미나 중심의 이론적 원론적 성격의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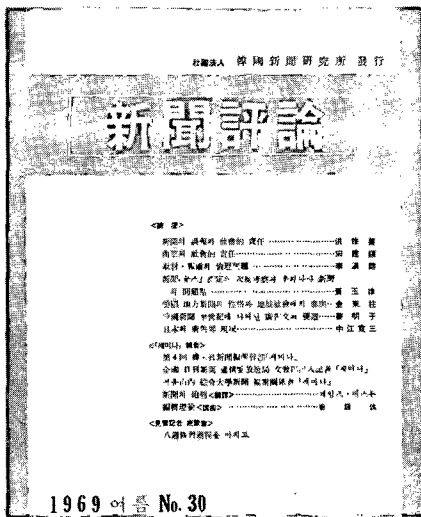
역는등 언론계 현안을 다루면서 한·일편집인세미나, 정치부장·편집부장세미나 등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편집간사였던 송창기씨는 이관주소장이 대범한 성격



3대 발행인 이관주소장

으로 신문평론제작에도 그러한 자세를 견지했으며 그때의 세미나는 언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우 활기를 띠었다고 말하고 있다. 71년 8월 14일 문공부는 62년 제정됐던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을 적용, 법정시설기준이 미비한 지방일간지 12개, 주간지 19개등 모두 32개의 정기간행물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시설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정간처분 이상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다. 이에따라 신문평론은 71년 가을호(38호)에 「법조항에 묶인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실고 이 조치를 비판했다. 「언론제한법령 폐지에 전 언론인은 결기하라」(이관주소장), 「법이론에 비추어본 문제점」(이병린변호사), 「국가보안법·반공법은 개정되어야 한다」(천관우 동아일보이사) 등의 글을 통해 언론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71년 12월 21일 신문협회의 「언론자유정확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프레스카드제실시가 발표되자 신문평론은 72년 봄·여름합병호(40호)에서 「프레스카드제실시의 득실」이라는 특집을 실고 이를 맹렬히 비난했다. 「실시를 계기로 본 그 실상과 허상」(김승한 중앙일보논설주간), 「각국기자등록제도의 역사적 고찰」(장용·한양대신방과교수) 등의 논문을 실는 한편 일선취재기자 좌담회를 열고 이를 비판했다. 특히 국무총리, 문공장관, 신문협회장앞으로 보낸 홍중언선생의 프레스카드제실시에 대한 시정 촉구건의서를 그대로 실어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계간지때의 신문평론 69년 여름호

용에 시사적인 내용이 차츰 가미되기 시작한다.

3선개헌과동보도자세 비판하기도

이 시기의 신문평론은 69년 3선개헌과동에서 신문이 보인 무기력한 자세나 논평없는 보도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실기도했다(31·32호). <김승한 중앙일보논설위원의 「개헌반대 학생데모와 한국신문의 보도자세」, 박동운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3선개헌 국민투표 논조 비판」등> 71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는 선거와 보도라는 제목으로 특집(71년 봄·36호)을



4대 발행인 윤임술소장

그후 계간으로 는 마지막인 72년 가을호(41호)를 낸후 유신을 맞아 73년 5월까지 휴간하게 된다. 이 관구소장의 임기만으로 신아일보 편집국장출신의 윤임술씨가 제4대 신문연구소소장(이사장 방우영조선일보사장)겸 신문평론 발행인으로 73년 3월 2일 취임한후 신문평론은 계간시대를 청산하고 73년 5·6월호(42호)부터 격월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한다. 포지 및 제자도 바꾸는 한편 광고를 대폭 늘리고 내용도 대폭적으로 바꾸었다. 화보로 뉴스의 눈을 신설 일선 사진기자들이 잡은 생생한 뉴스의 현장을 투고등을받아 편집실에서 선정, 게재했다.

실무 도움주는 조사·자료중심의 월간시대

아울러 외고등 기고중심의 편집 내용을 편집실작성 중심으로 바꾸어 나갔다.

새로이 '언론가신문'란을 마련, 책의 첫머리에 내고 언론계의 각종 뉴스와 소식을 신문스타일로 편집해 실었다. 73년 5·6월호(42호)의 언론가신문 톱뉴스는 새로 구성된 유신국회에 언론인출신이 19명이나 진출했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편집부는 「독자성향설문 조사보고」 「전국 33개일간지 1일제재기사·사진건수 조사보고」를 비롯해 「중앙 8개지 광고게재량」 「직업병과 언론인」 「언론가동정」 「IPI리포트」 「언론사순방기」 등의 기사를 작성해 게재하여 언론실무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갔다.

73년 5·6월호(42호)까지 송창기편집간사가 편집을 맡다가 6월에 대만정부장학생으로 유학을떠나고 73년 7·8월호(43호)부터 대한일보기자출신의 이병국씨(현 한국경제 데이터서비스부부장대우)가 편집간사를 맡아 편집에 참여

한다. 그후 73년부터 신문연구소가 언론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된 81년 6월까지 신문평론·월간 신문과방송은 통권 43호에서 126호까지 발행됐다.

윤소장이 계획한 실무중심적이며 기록적·분석적인 내용의 편집방향은 많은 논문·자료등을 이 시기에 축적했다.

특히 경영, 판매, 광고, 공무 등 과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의 기사를 대폭 게재했고 연수및 저널리즘교육, 독자조사 분야등에도 관심을 돌려 언론의 현대화, 전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후 75년 5월호(54호)부터 월간으로 바꾸면서 편집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김경환 한국일보편집국장, 김규환 서울대신문연구소장, 송건호 전동아일보편집국장, 이상희 서울대신문학과교수, 이원희 중앙일보상무이사).



개제한 월간 신문과 방송 76년 11월호

54호에는 당시 조선·동아일보사태를 특집으로 다루고 「조선·동아일보문제의 경위」(편집부), 「조선·동아사태일지」 「조선·동아사태에 붙여서」(홍종인) 등의 기사를 실었다. 당시의 사태로 동아일보편집국장을 그만둔 송건호씨는 76년 말까지 신문평론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신문문체변천사-1880년대 계몽기에서 현재까지」 「문제의 사설을 찾아서-사설로 본 언론투쟁사 ①②③」 「매스컴과 대학생

의 의식구조」 「잡지저널리즘의문제와 전망」 「언론비평의 제도화를 제의한다」 등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70년대 신문평론과 월간 신문과방송시대에 연재됐던 연재물로는 「한국신문사화」 「한국방송사화」 「나의 기자시절」 「한국신문기자만화사상」(이해창·이대신방과교수) 「언론인물론」 「매스컴강좌」(최중수한국일보논설위원) 「요즘신문 어떻게습니까 (대답)」 등이 있다.

신문연구소는 신문·방송사화, 언론인물론을 모아 「언론비화 100편」 「한국언론인물지」를 출판했고 이해창교수도 여기에 연재된 내용을 묶어 「한국신문만화사」를 냈다. 최중수씨(현 중앙대교수)도 매스컴강좌를 묶어 「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을 출판했다.

나의 기자시절은 원로 언론인들을 편집자가 직접 찾아가서 원고내용을 상의했는데 이병국편집간사는 당시 우수규선생이 월급봉투, 신문스크랩, 사진, 자료등 완벽하고 방대한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어 놀랐다고 말한다.

이 기간동안에 각지 주요 해설기사를 색인했으며 「언론인구조사」 「전국기자들의 의식조사」 「70년대 언론인 의식구조」(79년 3월 100호 특집) 등 언론관계 조사도 실시했다. 특히 신문활자문제를 다룬 「신문활자배수의 문제점 (좌담)」(78. 8, 93호), 전문가들이 지적한 「신문활자는 더 커야한다」(78. 9, 94호) 등의 기사는 83년 「신문활자 가독성보고서」를 통한 전국 신문들의 활자확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신문발행부수 공개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60년대초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77년부터 편집간사를 맡았던 정방준씨(현 언론연구원 출판부장)는 말한다. 79년

3월에 100호를 맞아 특대호를 발간했다.

79년 10·26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시대가 도래하자 79년 12월부터 80년 5월까지 월간 신문과방송은 「새시대의 언론-언론에 바라는 각계의 소리」 「정보조작과 80년대」 「한국언론 70년대의 반성과 80년대의 전망」 「언론과 법률이상공청회」 「언론과법률토론회」 등의 기사를 실고 새로운 언론시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갔다.

그러나 80년 5·17사태를 고비로 80년 6월 이후엔 컬러TV방영과 교육방송실시에 대비한 관련기사와 좌담회등만을 실었고 80년 12월호(121호)엔 언론사통폐합소식을 아무런 논평없이 다루었을뿐이다. 80년 12월호는 「신문·방송·통신구조개편」이라는 제목으로 「건전언론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 「중앙지 사설전문」 「통폐합지 중간사요지」 등을 실고 있다.

가로쓰기·오프셋단행·실무현장 위주로

81년 6월에 신문연구소가 해체돼 언론연구원으로 확대 설립되면서 월간 신문과방송은 81년 6·7월호(127호)부터 연구원 출판부에서 맡아 편집하게됐다.

이때부터 언론연수와 언론인 전문화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과 해외자료를 중점적으로 수록하고있으며 특히 언론의 현대화를 위한 CTS문제, 뉴미디어, 올림픽보도, 분야별 편집보도내용 점검, 취재보도시스템개선문제, 지방언론, 발행부수공개와 광고문제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연재물로는 「한국신문소설사」(서광운 한국일보도서관장), 「나의 일선기자시절」 「바른 글고운 말」 등이 있었으며 해외언론계 동정을 직접 기행, 소개한 「해외리포트」, 취재현장에서 보낸 「취재낙수」가 장기간 계속됐다.

이밖에 신문보도의 이슈를 뽑아 범죄보도와



100호기념 특대호 79년 3월호



5대 발행인 노철용원장

도, 사진보도, 대학입시보도 등 실무적인 전문 분야의 문제등도 깊이있게 취급해 오고 있다.

특히 월간 신문과방송은 87년 1월부터 가로쓰기편집을 단행, 종래의 활판인쇄에서 오프셋

프라이버시, 심층 취재보도방향, 청소년문제보도, 이데올로기와 언론 등 주제별로 매월 특집을 엮어 취재 보도의 문제점 점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신문 표기문제, 신문문 장변천사, 과학보

한동안 신문연구 소고문도 맡았었다. 80년이후엔 국정자문위원으로 있다. 홍소장시절 편집간사였던 고명식씨는 그후의 오종식선생을 모시다 동양통신 외신부장으로 옮겼다. 고간사는 동양통신 외신부장, 해외부장, 편집부국장을 거쳐 연합통신 편집위원을 지내다 85년 정년퇴직했다. 86년엔 아시안게임동안 선수촌신문인 아시아드 빌리저를 만들었고 그후 월간 영문화보 코리아 투데이 편집고문, 미ABC방송스트링거 등으로 활약하다가 현재 미문화원에 재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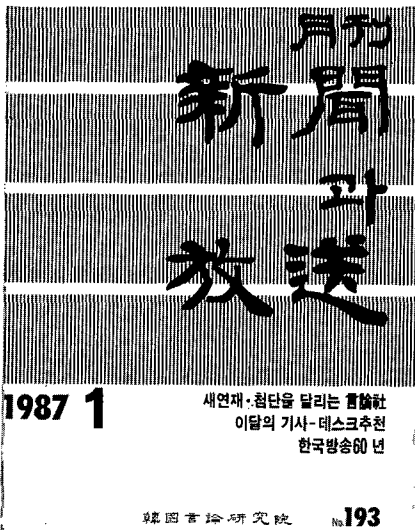


6대 발행인 조용중원장

2대 발행인 오종식선생은 한국일보주필, 서울신문사장, 국제신보사장 등을 거쳐 66년부터 69년말까지 신문연구소장을 지냈다. 70년부터는 대한공론사 이사장을지내다가 76년 작고했다. 64년부터 67년말까지 신문독자조사를 위해 유재천연구원이 활동했는데 당시의 서울,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독자조사는 국내최초의 신문독자조사였다고 유교수는 밝힌다. 유연구원은 그후 68년 서울대신문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도미, 미네소타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경희대 신방과교수를 거쳐 74년부터 서강대신방과교수로 재직하고있다.

66년엔 박승훈건국대교수가 편집간사로있었다. 연세대 영문과 및 미캘리포니아주립대 신문학과를 졸업한후 61년부터 건국대 영문과교수및 건대신문주필에 있으면서 66년 신문평론 편집을 맡았었다. 현재는 건국대교수로 있으면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펴고있다.

현 이화여대 신방과 안광식교수도 67년 신문평론 편집간사로 일했다. 코리언리퍼블릭 외신부장을 거쳐 미 콜럼비아대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 67년 이화여대교수로 재직하면서 신문평론을 편집, 이론적인 분야를 많이 소개했다. 3



가로쓰기·오프셋인쇄 단행한 87년 1월호

인쇄로 바뀌 지면을 쇄신했으며 일선 언론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실무주의 기사와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록 하고 있다.

편집자들 학계·언론계등서 활동

발행인은 신문연구소 초대 홍종인소장부터 현 언론 연구원 조용중원장까지 모두 6번 바뀌었다. 홍종인소장은 64년부터 사단법인으로바뀐 66년까지 재임한 후 동화통신회장을 지냈고

대 이관구소장은 70년부터 72년까지 신문평론 발행인을 맡았었다. 이소장은 서울신문주필, 경향신문주필, 부사장, 신문협회장을 지내고 신문 연구소장을 역임한 다음 4·7언론인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과 4·7언론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오종식소장과 이관구소장을 모시고 일했던 당시의 편집간사 송창기씨는 오종식선생이 3선 개헌과동이후 대한공문사사장으로 옮겨 갔으며 이관구선생은 유신직전 언론에대한 악법철폐를 주장하는 등 언론을 위한 활발한 운동을 벌였다고 술회한다.

신아일보기자로 있다가 4대 편집간사를 맡았던 송씨는 당시의 경제적으로나,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언론인 자질향상과 언론현상의 연구 등에 매우 보람을 느끼면서 일했다고 말한다.

송간사는 유신다음해인 73년 윤임술소장이 부임한뒤 얼마있다가 자유중국정부의 장학생으로 국립정치대학교에 유학을 가, 자유중국 외국유학생으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등에서 강의하다 80년부터 국민대학교 중문과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장 오랫동안 신문과 방송 발행인으로 있었던 윤임술 현 부산일보사장은 73년부터 86년까지 신문연구소장, 언론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신문평론을 월간으로 바꾸고 제호도 월간 신문과 방송으로 바꿨다. 조선일보편집부국장, 신

아일보 편집국장, 상무·편집주간을 거쳐 신문연구소장, 언론연구원장을 지내다 86년 부산일보사장으로 옮겨갔다. 윤사장은 월간 신문과방송을 만들면서 언론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다고 말한다. 윤소장밑에서 월간 신문과방송 편집간사로있던 이병국씨는 대한일보기자로 있다가 73년부터 77년까지 월간 신문과방송 편집을 맡았다. 그후 한국경제신문 외신부, 산업1부, 외신부차장을 거쳐 현재는 데이터서비스부 부장대우로 있다. 그는 월간 신문과방송을 편집하면서 신문학에 관심을 가지게돼 84년 미 불주립대 신문학과를 수학하게 됐다고 말한다. 현재 외국어대에 강의를 나가기도있다.

이밖에도 월간 신문과방송 제작에 참여했던 발행인및 편집진은 많은데 노철용경향신문사장은 86~87년 언론연구원원장으로서 발행인이었다.

편집진으로서도 김경환이사(86년 작고) 최중수이사(현 중앙대강사) 황옥률전문위원(86년 작고)정일수씨(65년·현 중국어세계발행인), 이진구씨(77년·독일서 신문학박사학위받고 최근 귀국), 신세미씨(78~79년·현 조선일보문화부기자), 김종숙씨(79~85년·재미), 남정관씨(81~82년·현청와대정무비서관), 정충씨(81~85년·현 스포츠서울체육 1부 차장급), 윤민구씨(83~85년·현 스포츠서울문예부차장) 등이 재직했었다. (石)

제19회 한국기자상 선정 4개부문 7건-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회장 鄭求運)는 8월7일 오후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趙庸中한국언론연구원 원장)를 열고 제19회 한국기자상 수상작으로 취재보도 3건, 사진보도 1건, 신문편집 1건, 방송제작 2건등 모두 4개부문 7개작품을 선정했다. 각 부문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취재보도부문 ▲박중철군 고문치사및 은폐 조작사건=동아일보사회부 특별취재반(金次雄·黃鎬澤·尹相參·黃烈憲·林彩靑) ▲박중철군 고문치사 첫보도=중앙일보 사회부(申性活·金斗

宇·許尙天) ▲한국의 야생동물=MBC카메라 취재부문(朴來陽·朴允洵·林秉吉)

◇사진보도부문 ▲포항5인조 살인강도사건=서울신문사진부 朴榮君

◇신문편집부문 ▲김일성사망설=중앙일보편집부차장 趙時行

◇방송제작부문 ▲꿀벌의 세계=MBC경제부權在弘 MBC카메라취재부 全在哲 ▲21세기를 겨냥한다=KBS기획보도실(方允鉉·李東根·白承大·張益煥)